

우리 삶에 스며든 '용' 모습 조명

익산 백제왕궁박물관, '용(龍), 삶에 스며들다' 특별전 개최

익산 백제왕궁박물관이 2024년 청룡의 해를 마무리하며 삶에 스며든 다양한 용의 모습을 조명한다.

백제왕궁박물관은 10월 29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특별전시 '용(龍), 삶에 스며들다'를 진행한다. 전시 관람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가능하다.

이번 전시를 통해 용이 새겨진 유·무형의 문화유산 4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다. 주요 전시품으로 △고종황제 어진(원광대학교 박물관 소장) △정동은입인(동문향로(익산 송림사 소장) △청자상감운화용문동채병(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악리도(국립민속박물관 소장) 등을 선보인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 침선장 고(故) 최운순의 작품 '황룡포' (전북대학교 박물관 소장)와 초대 익산문화원장인 인도 이인호 선생이

그린 '기세배 깃발'을 통해 무형 문화유산의 기술도 엿볼 수 있다.

특별전시는 유물뿐만 아니라 공연과 홀로그램 전시가 함께 기획돼 관람에 즐거움을 더한다.

개막공연으로 어린이 관람객을 위한 '서동요' 인형극을 진행해 역사에 대해 쉽고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체험형 홀로그램기술 시연과 지원사업을 통해 '삼국유사'의 무왕 탄생설화와 대한제국 선포 당시 만 들었던 옥새 2점을 홀로그램으로 구현해 전시한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예부터 우리 삶에 스며든 용의 다양한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유·무형의 문화유산부터 홀로그램까지 과거와 현대를 아우르는 이번 전시회에 많은 관심과 방문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용(龍), 삶에 스며들다' 포스터

국립민속국악원 '국악명상' 호응

국악 연주 어우러진 차별화된 명상 경험 제공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이 새롭게 선보인 힐링 프로그램 '국악명상'이 참여자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전통 국악과 요가, 명상이 결합된 독창적인 방식으로 참가자들의 심신의 안정을 돕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구성과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월 2일 시작된 '국악명상'은 매주 수요일 오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하타 요가, 아슈탕가 요가, 심잉블 테라피, 감정 아로마 명상과 가야금, 해금, 대금의 국악 연주가 어우러져 차별화된 명상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하루를 시작하는 데 큰 에너지가 된다, 국악의 선율이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수강은 현재 모든 회차가 예약 마감,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에 힘입어 내년에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제17회 진안예술제 성황리 개최

'제17회 진안예술제'가 지난 26일 마이산 북부 마이산농촌테마공원 일대에서 열렸다.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진안지회(이하 진안예술제)가 주관하고 진안군이 후원한 이

번 예술제는 진안예총 산하 6개 협회가 참여해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어 다채로웠다는 평가다.

이날 마이산농촌테마공원 분수대에서는 영화인협회와 준비한 레드카펫 입장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국악협회의 길놀이, 문인협회의 시낭송, 음악협회의 성악이 이어졌으며, 국악협회

의 민요와 사물놀이에 이은 연예예술인협회의 트로트로 예술제의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기도 했다.

특히 문인협회의 시화전, 미술협회의 회화전과 미술체험이 주변을 가득 채워 시와 그림이 마이산의 가을 정취를 한껏 돋구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제5회 전주한옥마을 전국시낭송대회 성료

손성호 씨, 대상 수상... 홍보대사 위촉

'제5회 전주한옥마을 전국시낭송경연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에 따르면 지난 27일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에서 진행된 시낭송대회는 예심을 거쳐 선발된 33명이 경쟁을 벌였다.

영예의 대상은 안도현 시인의 '서울로 가는 전봉준'을 낭송한 손성호(58세, 서울 성북구) 씨가 차지했다. 이와 함께 △금상 1명(김미숙) △은상 1명(박경자) △동상 5명(이명순, 최영덕, 노원공, 임미경, 김선목)이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시상금과 함께 시낭송가 인증서가 수여됐다.

특히, 대상 수상자인 손성호 씨는 전년도 대회의 금상 수상에 이어 올해는 대상의 영예를 안으며 상금 200만원과 함께 향후 전주한옥마



을의 시(詩) 홍보대사로 위촉될 예정이다.

강민서 한벽루사람들 대표는 "이번 시낭송대회는 음성을 통해 전해지는 선율이 문학을 더 풍부하게 표현하고 단순한 문학작 읽기를 넘어 공동체적 예술로서 승화된 시의 향연이었다"며 "시낭송이 역사문화관광도시를 표방하는 전주시의 또 다른 문화콘텐츠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전북전통주막걸리협회, 협약 체결

31일 하안양옥집서 시음회 개최

지역을 대표하는 다양한 전통주를 한 자리에서 맛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28일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에 따르면 지난 17일 전북전통주막걸리협회(회장 전성수)와 업무협약을 체결, 이날 협약의 첫 후속 조치로 지역을 대표하는 다양한 전통주를 한식 안주와 함께 맛보는 시음회를 오는 31일 옛 전북도지사 관사였던 하안양옥집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는 전통주의 맛과 향을 오롯이 즐길 수 있는 시음회로 최근 새로운 경험을 중시하는 MZ세대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는 'K-전통주' 전성시대에 발맞춰 전통주의 새로운 인식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전성수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당과 함께 다양한 전통문화 행사와 연계해 전통주의 관심도와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도영 원장은 "전통주는 쌀과 과일 등 특산물을 활용해 만들기에 지역의 음식과 문화 가치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며 "이번 시음회를



시작으로 전통주의 매력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협업 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립미술관 서울분관서 '홍선기 개인전' 개최

전북도립미술관(관장 이애선)은 10월 3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서울분관에서 홍선기 개인전을 연다고 밝혔다.

작가에 따르면 회화 작업에 천착하며 사회적 시간, 인간의 내면, 자전적 서사 등을 색조의 대비, 두꺼운 질감, 거친 표현 처리로 표현하고 있다. 그중 자전적 서사는 작가의 활동 초기인 1980년대부터 다뤄졌던 주제로 지속되고 있다. 작가는 1983년 첫 전시회 주제로 자화상을 선택할 정도로 자신을 둘러싼 현실과 개인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졌다. 이러한 경험은 그의 작품의 근간을 이루며 이후에도 이어졌고 그의 서울에서의 약 일 년간 체류 기간, 억압적인 유년 시절 등이 전반적으로 화면 위에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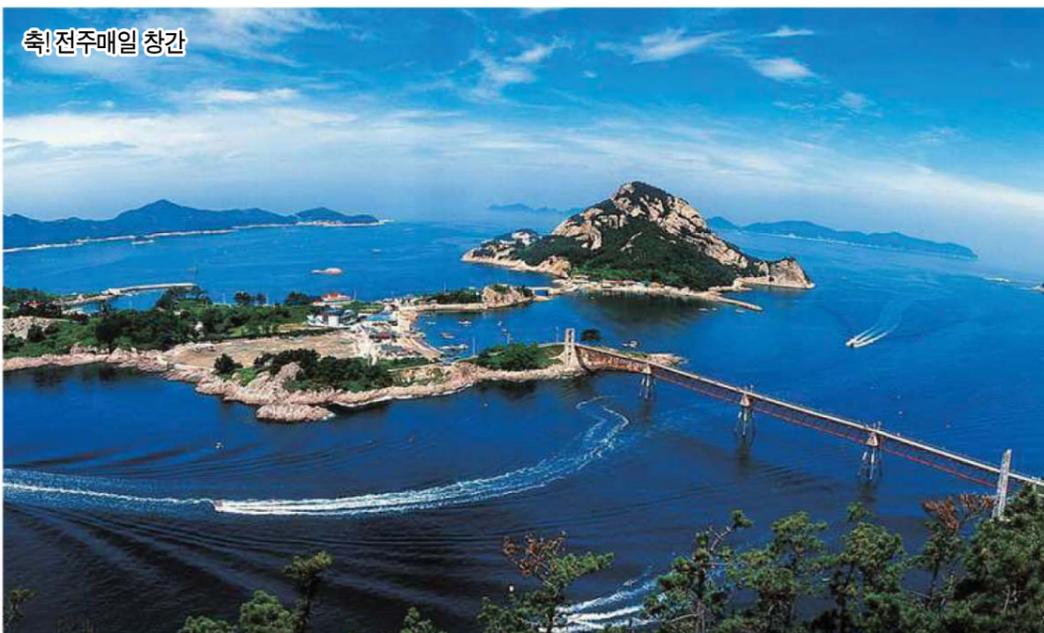
특히 이번 전시인 '뒤집어진 캔버스 - 반전의 인물들'에서는 자화상 작업의 연장선으로 인간의 심리적 혼돈을 시각화한다. 캔버스 뒷

면에 얼굴을 배치하고 그 위로 캔버스의 틀을 중첩하는 구성은 작가만의 조형적 수사법이다. 인물 위로 철창과 같은 나무 틀을 위치시킴으로써 사람이 갇혀 있는 것 같은 상황이 연출된다. 거칠게 마무리된 채색과 캔버스 테두리 위로 넘쳐 흘러내리는 물감의 자국은 화면 속 인물이 분출하는 내면의 고통과 분노, 우울을 암시한다.

작가는 회화의 정형화된 언어를 해체하고 반전된 구성을 통해 낯설게 보는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내면적 혼란과 변화의 순간을 강조하고자 했다. 그리고 캔버스 뒷면을 활용해 동일하면서도 다른 수많은 자화상을 표현해 심리적 갈등과 억눌린 감정을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환기하고 작가만의 개인적 경험을 공통적 경험으로 확장하려고 시도했다.

/장은성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열린 수협!
희망의 수협!
수산인에게 풍요로움을
고객에게 신뢰감을 주는
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조합장 **김광철**
신용상임이사 **이성준**
경제상임이사 **김형문**

어업인이 부자되는 어부(漁夫)의 세상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

www.gunsan-suhyup.co.kr